

##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지영<sup>‡</sup>

동주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Ji-Young Lee<sup>‡</sup>

Dept. of Dental Hygiene, Dongju college, Adjunct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21, 2021 to June 30, 2021, targeting 132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at three schools in Busa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multiple linear Rregression analysis) program.

**Results:** School syste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were found to hav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Conclusions:** The higher the school syste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s, the more greater the influence is on the students' ability to adapt to college life adaptation.

**Keywords** Adjustment to college life, Dental hygiene,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eceived on Aug 09, 2021. Revised on Sep 14, 2021. Accepted on Sep 14, 2021.

<sup>‡</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j1021@nate.com)

## I. 서론

대학생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 방황, 혼란을 겪으며 성인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있으며, 졸업 후 취업하기 전 준비과정으로 대학생활동안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지며 적응하는 단계를 거쳐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1].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 내에서 학업 생활과 대인관계, 과외 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그리고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2]. 대학생은 고등학교 시기까지 대학입시 위주로 수동적인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 하면, 스스로가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하고, 시간 관리 및 진로와 취업 준비 등 이전과는 다른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함에[3] 입학 이후에 주어지는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에 당황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된다. 대학은 대학생이 학업적, 사회적, 개인정서적, 대학환경에 잘 적응하여 전공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데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생이 스

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4].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문제해결이 높고 실무능력이 높아져 대학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5].

치위생(학)과에서는 치위생학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위한 이론 수업과 임상실습 수업을 병행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임상에서의 높은 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요구받는 시점에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전공 지식습득이 요구되고 있다[6]. 그리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많은 전공과목으로 인해 여유가 없어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내 정해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국가고시 준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전공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중도포기나 자퇴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7]. 이에 학업적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의 양상이 달라진다[8].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한다[9].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진로, 미래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전공의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만족,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 관계에 대한 만족,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등을 통하여 전공만족도를 판단하여[10],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거나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한다. 반대로, 미래 자신의 전공에 대한 고민 없이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들은 전공 관련 교육과정에서 전공만족도가 낮아진다[11].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기반위에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12]. 김 등[13]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대학생들이 교수에게서 느끼는 친밀감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친밀감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4]. 또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도는 평균적으로 중간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15]. 현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 요인을 보면 주로, 자기결정성[16], 학업성취도[17] 등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으나,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학교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표본 수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양측), 검정력  $1-\beta=0.8$ 의 조건하에서 효과크기 0.5로 독립표본 t검정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의 수는 총 128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132부를 분석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 학제, 학과 선택 동기, 주관적 전공만족도, 지도교수 상담 횟수로 구성된 총 5문항을 조사하였다.

#### 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등[1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4로 나타났다.

####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10]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공만족도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59로 나타났다.

#### 4)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김과 한[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65로 나타났다.

5)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과 박[2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본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및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26.0 ver for windows, IBM SPSS Statistics)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에 대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의 분석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사용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2.3%, ‘여자’ 97.7%로 나타났고, 학제로는 ‘3년제’ 72.0%, ‘4년제’ 28.0%로 나타났다. 학과를 선택한 동기로는 ‘취업률이 높아야’ 59.1%, ‘점수에 맞춰서’ 5.3%, ‘가족 및 주변에서 추천 권유’ 16.7%, ‘적성에 맞을거 같아서’ 15.9%로 나타났고, 주관적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47.0%, ‘보통이다’ 53.0%로 나타났다. 지도교수 상담횟수에서는 ‘0회’ 7.6%, ‘1회’ 76.5%, ‘2회’ 12.1%, ‘3회 이상’ 3.8%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정도 의 평균점수는 <Table 2>와 같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1점이었으며, 전공만족도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3.86점이었으며, 대학생활적응 부분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정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정도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학과 선택 동기 ( $p<0.001$ ), 주관적 전공만족도( $p<0.001$ ), 지도교수 상담횟수 (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공만족도에서는 학과 선택 동기( $p<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는 학제( $p<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학생활적응에서는 학제( $p<0.05$ ), 학과 선택 동기( $p<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2)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3	2.3
	Female	129	97.7
School system	3 years	95	72.0
	4 years	37	28.0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78	59.1
	According to grades	7	5.3
	Recommend	22	16.7
	Aptitude	21	15.9
	Other	4	3.0
Subjective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62	47.0
	Usually	70	53.0
Consultations with professors	0	10	7.6
	1	101	76.5
	2	16	12.1
	>3	5	3.8
Total		100	

<Table 2> Score f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132)

Variables	M±SD	Min~Max	Rang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61±0.53	2.78~4.91	1~5
Major satisfaction	3.87±0.65	2.55~5.00	1~5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3.86±0.74	1.56~5.00	1~5
Adjustment to college life	3.28±0.64	2.11~5.00	1~5

<Table 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2)

Characteristics	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	3.23±0.41	-1.235	.219	3.33±0.29	-1.440	.152	3.56±0.44	-0.716	.475
Female	129	3.61±0.53			3.88±0.65			3.87±0.75		
School system										
3 years	95	3.57±0.52	-1.389	.167	3.81±0.62	-1.640	.103	3.72±0.72	-3.484	.001**
4 years	37	3.71±0.55			4.02±0.73			4.20±0.70		
Employment	78	3.59±0.48	5.726	<.001***	3.82±0.64	2.990	.021*	3.84±0.77	1.154	.334
According to grades	7	3.54±0.56			3.86±0.88			4.03±0.80		
Recommend	22	3.29±0.42			3.63±0.47			3.63±0.64		
Aptitude	21	3.97±0.57			4.27±0.62			4.08±0.70		
Other	4	3.97±0.53			4.00±0.82			4.01±0.68		
Subjective major satisfaction	62	3.88±0.52	6.174	<.001***	4.27±0.61	7.912	<.001***	4.25±0.63	6.517	<.001***
Usually	70	3.37±0.41			3.52±0.46			3.51±0.66		
consultations with professors										
0	10	3.25±0.30 <sup>a</sup>	3.184	.026*	3.63±0.38	1.118	.344	3.62±0.73	2.453	.066
1	101	3.65±0.56 <sup>ab</sup>			3.88±0.67			3.88±0.72		
2	16	3.48±0.37 <sup>ab</sup>			3.82±0.66			3.63±0.84		
>3	5	4.04±0.18 <sup>b</sup>			4.27±0.65			4.56±0.41		

Analysed by t-tset and the one-way ANOVA, <sup>ab</sup> Scheffe post-hoc, M±SD: Mean ± Standard Deviation  
<sup>\*</sup>p<0.05, <sup>\*\*</sup>p<0.01, <sup>\*\*\*</sup>p<0.001

#### 4.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제, 학과 선택 동기, 주관적 전공만족도를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고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5.4%(Adj. $R^2=0.554$ )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8.127, p<0.001$ ).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학제( $\beta=0.196, p<0.05$ )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beta=0.293, p<0.05$ ), 전공만족도( $\beta=0.379, p<0.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 중 학제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V.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점 3.61점으로 나타나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등[18]의 연구에서 3.21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와 채[21]의 연구에서도 3.30점,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과 천[22]의 연구에서 3.2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입학 후 입시위주의 교육인 단순 암기와 정보제공의 방식으로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숙해가면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또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혼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온라인 학습에 잘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주기적인 온라인 강의 업데이트를 통해 학습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에서는 5점 만점에 평점 3.87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학년을 제한하지 않고 진행한 정과 천[22]의 연구에서 3.59점, 보건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강[23]에서는 3.4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학) 신입생들이 본인이 학과 선택 시 적성에 맞을 거 같아 본인 의지에 따라 선택한 경우와 한 학기 전공 교과수업 후 전공 내용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친구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교수-상호작용에서는 5점 만점에 평점 3.86점으로 나타나 치위생(학)과 학생으로 진행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정과 천[22]의 연구에서는 3.72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과 박[12]의 연구에서는 3.85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때부터 교수와 함께 하는 임상위주의 실습수업이 많아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치위생(학)과의 특성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학생활적응에서는 5점 만점에 평점 3.28점으로 정과 임[24]의 연구에서는 3.25점, 장과 이[16]의 연구에서는 3.30점으로 나타나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0.077	0.305		0.254	0.800
School system	0.279	0.089	0.196	3.127	0.002*
Application motivation	-0.121	0.112	-0.069	-1.073	0.285
Subjective major satisfaction	-0.012	0.094	-0.009	-0.124	0.902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0.354	0.101	0.293	3.502	0.001**
Major satisfaction	0.372	0.096	0.379	3.892	<.001***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0.112	0.079	0.129	1.417	0.159

N=132,  $R^2=.574$ , Adj. $R^2=.554$ , F-value=28.127,  $p=.000$ , Durbin-Watson=2.014

Dummy variable: School system 1= 4 years, Application motivation 1= Aptitude, Subjective major satisfaction 1= Satisfied

\* $p<0.05$ , \*\* $p<0.01$ , \*\*\* $p<0.001$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신입생들은 학업과 취업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이며, 치위생학 교육과정이 대체적으로 2학년부턴 전공 교과목이 주가 되므로 대학생활적응에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학과 선택 동기( $p<0.001$ ), 주관적 전공만족도( $p<0.001$ ), 지도교수 상담횟수(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정과 천[22]의 연구에서도 학과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높이고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스스로가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새로운 동료, 교수 등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23]. 그러므로 지도교수님들과의 잦은 상담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형성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학과 및 대학생활이나 학업성취도 등에 있어서 생기는 갈등이나 스트레스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생들과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는 학과 선택 동기( $p<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와 채[21]의 연구에서도 학과 선택동기에 따라서 전공만족도 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진로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학생들의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학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위생(학)과에 대한 홍보 및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공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는 학제( $p<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과 천[22]의 연구에서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상담자수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에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학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전공에 비해 1학년 때부터 실습수업이 많아지면서 대체적으로 교수와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상호작용을 사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칭찬과 배려가 함께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친밀한 유대관계 및 신뢰감 형성으로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습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와 학생들과의 정기적인 상담이나 만남이 이루어져 학년이 높아지더라도 전공에 대한 만족과 학습에 대한 만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관계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서는 학제( $p<0.05$ ), 학과 선택 동기( $p<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으로 연구한 정과 임[29]의 연구에서도 입학동기가 있고 간호학과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보건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강[23]의 연구에서도 성적과 학과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 비슷한 맥락을 나타내었다. 대학 입학 전형이 다양화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매년 입학 전과 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양과 전공 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17]. 점수에 맞춰서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대학 입시 기간에도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진로 및 취업전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입학 후 학생들이 학과공부에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전공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맞춤 전공 선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학제( $\beta=0.196, p<0.05$ )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beta=0.293, p<0.05$ ), 전공만족도( $\beta=0.379, p<0.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와 강[23]의 보건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된 박과 정[4]의 연구와 최와 채[21]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학제, 나이, 연구도구 등의 차이로 인해 연구결과가 대체적으로 부분적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본 연구와 비교할 만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한계가 있었으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결과에 대한 검증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 혼자 알아서 하도록 두는 학습방법이 아니며[4],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교수는 적절한 수업자료를 제시하고 교수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강의 교수법이나

학습전략 및 방안 등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촉진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 전공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전공 관련 교과과정과 연계한 멘토링, 세미나,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여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 및 대학차원의 교육과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제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지역 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치위생(학)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1 \pm 0.53$ 점이었으며, 전공만족도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3.87 \pm 0.65$ 점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3.86 \pm 0.74$ 점이었으며, 대학생활적응 부분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3.28 \pm 0.64$ 점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학과 선택 동기( $p < 0.001$ ), 주관적 전공만족도( $p < 0.001$ ), 지도교수 상담횟수( $p < 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공만족도에서는 학과 선택 동기( $p < 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는 학제( $p < 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대학생활적응에서는 학제( $p < 0.05$ ), 학과 선

택 동기( $p < 0.05$ ), 주관적 전공만족도( $p < 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제( $\beta = 0.196$ ,  $p < 0.05$ )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beta = 0.293$ ,  $p < 0.05$ ), 전공만족도( $\beta = 0.379$ ,  $p < 0.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론을 통해 학제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REFERENCES

1. Lee YW, Lee YJ: The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life stress, self-efficacy and university student life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4): 664-671, 2005.
2. Baker RW,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179-189, 1984. DOI: 10.1037/0022-0167.31.2.179
3. Kim EA, Jang KS: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2012. DOI: 10.5977/jkasne.2012.18.2.312
4. Park HS, Jeong KS: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549-557, 2013. DOI: 10.5977/jkasne.2013.19.4.549
5. Oh HS: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311-321, 2017. DOI: 10.14400/JDC.2017.15.8.311
6. Kang HS, So MH: The effect of self-esteem, self-efficacy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20(3):135-146, 2019. DOI: 10.35133/kssche.20191231.12
7. Choi HJ, Lee EJ: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 Nursing 19(2):261-268, 2012.  
DOI: 10.7739/jkafn.2012.19.2.261
8.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p.117-180, 1984.
  9.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0.
  10. Park KS: Self-efficacy and the satisfaction on dental hygiene-majoring students.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2015.
  11. Ko JE, Kim MH, Kim EJ, et al.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Ewha Nursing 45:29-44, 2011.
  12. Lim KM, Park JH: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195-205, 2018.  
DOI: 10.5762/KAIS.2018.19.9.195
  13. Kim JM, Cheon HW: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Focus on Jeollabuk-do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 Service Management-. FoodService Industry Journal 9(3):81-92, 2013.  
DOI: 10.22509/kfsa.2013.9.3.007
  14. Jeong EI, Park YH: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9(1):73-93, 2008.  
DOI: 10.15753/aje.2008.9.1.004
  15. Yoon EG: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university freshmen's ego-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2002.
  16. Jang KA, Lee HJ: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8(1):17-22, 2020.  
DOI: 10.33615/jkohs.2020.8.1.17
  17. Shin SH: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S A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2):119-125, 2020.  
DOI: 10.22156/CS4SMB.2020.10.12.119
  18. Lee SJ, Jang YK, Lee HN, Park Y: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literacy measurement tools: focusing on communication skills, problem solving skills, and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20, 2003.
  19. Kim HJ, Han SY: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Dance Ability on Achievement.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1(21):1-18, 2010.
  20. Jeong EI, Park Y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69-92, 2009.  
DOI: 10.17927/tkjems.2009.21.2.69
  21. Choi YH, Chae MJ: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0):479-491, 2019  
DOI: 10.35873/ajmahs.2019.9.10.041
  22. Jung JA, Cheon HW: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and Welfare, 21(4):253-272, 2019.  
DOI: 10.23948/kshw.2019.12.21.4.253
  23. Lee JY, Kang YJ: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en majoring in health scie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8(4):16-24, 2020.  
DOI: 10.33615/jkohs.2020.8.4.16
  24. Jeong IJ, Lim SM: Factors influenc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4):64-73, 2021.  
DOI: 10.22156/CS4SMB.2021.11.04.064